

‘잇다’류 유의어의 결합 관계 고찰

-대상 및 주체 명사구를 중심으로-

주역가*·전은진**

-차 례-

1. 서론
2. ‘잇다’류 유의어의 선정 과정
3. ‘잇다’류 유의어와 대상 명사구의 결합 관계
4. ‘잇다’류 유의어와 주체 명사구의 결합 관계
5. 결론

* 주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부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있다’류 유의어와 대상 및 주체 명사구의 결합 관계를 고찰하여 유의어의 의미적 선호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단어의 의미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있다’류 유의어와 대상 명사구의 결합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있다’의 대상 명사구는 의미의 모든 유형에 출현하였고, [행위]와 [심리] 유형의 명사구와 결합한 용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망각하다’는 [처지] 유형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그다음으로 [개념] 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깜박하다’의 대상 명사구는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내용에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까먹다’는 ‘가사, 대사, 말, 이야기’ 등의 [언어] 유형의 명사구와 결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류 유의어와 주체 명사구의 결합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있다’는 1인칭, 3인칭 명사구와 고루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망각하다’는 3인칭 명사구와 결합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반면에 ‘깜박하다’, ‘까먹다’는 1인칭 명사구와 결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 유의어, 대상 명사구, 주체 명사구, 결합 관계, 의미 유형

1. 서론

이 연구는 ‘있다’류 유의어와 대상 및 주체 명사구의 결합 관계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사전과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대상인 ‘있다’류 유의어를 선정한 후, 그 유의어와 결합하는 대상 및 주체 명사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있다’류 유의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각 단어의 의미 특성을 고찰해 본다.

한국어의 사용 양상을 보면, ‘있다’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있다’류 유의어들을 살펴보면, 의미가 서로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사용 면에서 그 쓰임이 조금씩 다르고 특정 맥락에서는 교체가 불가능하거나 어색한 경우도 있다.

- (1) ㄱ. 국치를 {있었다/망각했다/?깜박했다/?까먹었다}.
 ㄴ. 약속을 {있었니/?망각했니/깜박했니/까먹었니?}

(1)의 표현을 사전적 의미나 문형을 기준으로 보면 오류라고 할 수 없어 보이나, ‘?’로 표시한 단어들의 쓰임은 어색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이는 의미적 선호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의미적 선호’란 단어나 구가 특정 어휘의 형태나 의미의 부류와 공기하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을 말한다. 의미적 선호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유의어가 특정 어휘나 어휘의 의미 부류와 높은 공기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대규모 말뭉치에 나타난 전형적인 공기 경향성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남길임, 2014; 최준, 2011).

단어의 공기 관계를 통해 유의어의 의미 특성이나 사용 양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공기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의어를 분석한 연구는 도재학·강범모(2012), 배운정(2015), 김아림·김바로(2018), 배운정(2021), 초심념(2022), 남귀옥(2022), 김일환·이승연(2023) 등이 있다. 공기어를 의미 분류하여 유의어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진령(2016), 신명선·이미현(2022), 초심념(2022), 김민채(2023) 등이 있다. 진령(2016)은 ‘무섭다, 두렵다’와 공기하는 어휘를 ‘인간, 동물, 사물, 상태, 사건’ 등으로 분류하였다. 신명선·이미

현(2022)은 ‘부끄럽다’류 한중 유의어의 실제 용례에서 ‘부끄럽다’ 유의어와 호응하는 명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공기 명사들을 ‘신체, 시간, 사회, 인물, 생물, 무생물, 내적 행위, 외적 행위, 기타’로 분류하여 ‘부끄럽다’류 한중 유의어의 의미를 변별하였다. 초심님(2022)은 Python Mecab 패키지를 이용하여 형태소를 분석한 후에, ‘기쁨’ 유의어와 공기하는 명사를 추출하고 이를 ‘인간, 사물, 상태, 사건, 관계’ 등으로 분류하여 유의어를 변별하였다. 김민채(2023)는 ‘걱정하다’류 유의어와 자주 결합하는 대상 명사구를 ‘상태, 추상, 인간, 사건, 구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의어별 결합 관계를 살펴보았다.

‘있다’류 단어는 ‘있다’를 포함하여 ‘까먹다, 깜박하다, 망각하다’ 외에 ‘돈망하다, 망기하다, 망실하다, 망치하다, 선망(善忘)하다,¹⁾ 선망후실하다/선망후실되다, 실념하다, 야자버리다, 유망(遺忘)하다, 현혹하다/현혹되다, 혼망하다’ 등 그 유의어들이 많은데도 지금까지 ‘있다’류 유의어들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있다’류 유의어를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말뭉치를 활용해 ‘있다’류 유의어와 결합하는 대상 및 주체 명사구를 분석하고 유의어들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있다’류 유의어의 선정 과정

이 장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있다’류 유의어를 선정한다. 동사 ‘있다’의 유의어를 선정하기 위해 『동의어, 반의어, 동음어 사전』, 『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낱말 유의어 사전』 등의 유의어 사전을 참고하였다. 사전별로 ‘있다’의 유의어를 찾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1)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동음이의어가 있는 경우에 원어를 따로 제시하였다.

<표 1> 사전별 ‘있다’의 유의어 목록

사전	유의어 목록
동의어, 반의어, 동음어 사전	까먹다, 망각하다, 잊어버리다
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까먹다, 떠나다, 망각하다, 망기하다, 망실하다, 몰각하다, 버리다, 선망후실하다, 실념하다, 야자버리다, 유망하다, 잊어버리다
낱말 유의어 사전	까먹다, 깜박하다, 깜빡하다, 망각하다, 망기하다, 망실하다, 망치하다, 몰각하다, 무시하다, 배신하다, 버리다, 실념하다, 야자버리다, 유망하다, 잊어버리다, 저버리다

<표 1>은 한국어 유의어 사전에서 ‘있다’의 유의어를 모두 찾아 목록화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확인한 후 그중에 ‘기억을 하지 못하다’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진하게 표시하였다.

유의어 사전 외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기억을 하지 못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는데, ‘까먹다, 깜박하다/깜빡하다, 돈망하다, 실념하다, 망각하다, 망기하다, 망실하다, 망치하다, 선망(善忘)하다, 선망후실하다/선망후실되다, 야자버리다, 유망(遺忘)하다, 있다, 현혹하다/현혹되다, 혼망하다’ 등의 어휘들이 등재되어 있었다.

사전에 등재된 ‘있다’류 유의어들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한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에서 검색하여 보았다. 이 어휘 중에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가 많아 ‘기억을 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단어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까먹다’의 경우는 ‘껍질이나 껍테기 따위에 싸여 있는 것을 내어 먹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깜박하다’의 경우는 ‘눈이 잠깐 감졌다 뜨이다’ 등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선망(善忘)하다’는 ‘선망(羨望)하다’라는 동음어, ‘유망(遺忘)하다’는 ‘유망(流亡)하다, 유망(有望)하다’ 등의 동음어가 존재하였다. 이처럼 ‘기억을 하지 못하다’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단어들은 통계에서 모두 제외한 후, ‘있다’류 유의어의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잊다’류 유의어의 출현 빈도

순위	어휘	출현 빈도
1	잊다	26,398
2	망각하다	1,003
3	까먹다	329
4	깜박하다/깜빡하다	126
5	망실하다	1
6	돈망하다, 망기하다, 망치하다, 선망하다, 선망후실하다/선망후실되다, 실념하다, 야자버리다, 유망하다, 현혹하다/현혹되다, 혼망하다	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잊다’류 유의어 중에 ‘잊다, 망각하다, 까먹다, 깜박하다/깜빡하다’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돈망하다, 망기하다, 망실하다, 망치하다, 선망(善忘)하다, 선망후실하다/선망후실되다, 실념하다, 야자버리다, 유망(遺忘)하다, 현혹하다/현혹되다, 혼망하다’ 등은 말뭉치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어휘들은 일상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기억을 하지 못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전과 말뭉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출현 빈도도 높은 ‘잊다, 망각하다, 깜박하다/깜빡하다, 까먹다’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잊어버리다’는 본동사 ‘잊다’에 ‘버리다’라는 보조동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고,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해 보면 ‘잊다’와 ‘잊어버리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고 의미가 동일하다.²⁾ 『동의어, 반의어, 동음어 사전』에서도 ‘잊어버리다’가 “‘잊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잊어버리다’는 ‘잊다’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깜박하다’는 의미가 동일한 ‘깜빡하다’라는 쉐 말이 존재하는데,³⁾ 이 두 단어는 뜻은 같고 어

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잊다’는 ‘한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 내지 못하다’로, ‘잊어버리다’는 ‘한번 알았던 것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거나 전혀 기억하여 내지 못하다’로 정의하여, 정도의 차이만 있고 그 외에 모든 뜻풀이가 완전히 동일하다.
3)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깜빡하다’를 ‘기억이나 의식 따위가 잠깐 흐려지다. ‘깜박하다’보다 쉐 느낌을 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감의 차이만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였다.⁴⁾

이 연구에서는 ‘있다’류 유의어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연구 대상인 ‘있다, 망각하다, 깜박하다, 까먹다’의 용례를 말뭉치에서 모두 추출한 후에 각 용례의 목적어, 주어를 찾아 결합 관계에 있는 어휘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 참조한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현대한국어사전』, 『고려대국어대사전』 등이고, 말뭉치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한 웹 기반 코퍼스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적 대상 단어의 앞뒤에 있는 명사를 기계적으로 모두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할 경우에 연구하고자 하는 어휘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단어들이 함께 추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까먹다’와 ‘깜박하다’의 경우, 다의어로서 ‘돈, 자산, 시간, 음식을 까먹다’, ‘눈 깜박할 사이’ 등의 용례처럼 ‘기억을 하지 못하다’의 의미와 관련 없는 용례가 같이 추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있다’류 유의어를 추출한 후 그 의미를 연구자가 일일이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에서 추출한 ‘기억을 하지 못하다’의 의미를 내포한 ‘있다’류 유의어는 ‘망각하다’가 1003개, ‘깜박하다’가 126개, ‘까먹다’가 329개로 분석되었다. ‘있다’의 용례는 26,000개가 넘어 다른 단어에 비해 그 수치가 너무 많고, 26,000개의 용례를 일일이 의미 유형화하기 어려워 ‘망각하다’ 용례와 동일한 수치인 1003개로 한정하여 세부 의미를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있다’류 유의어의 결합 관계를 분석한 용례 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있다’류 유의어의 용례 수

있다	망각하다	깜박하다	까먹다
1003	1003	126	329

지금까지 ‘있다’류 유의어의 선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3, 4장에서는 ‘있다’류 유의어와 결합 관계에 있는 대상 명사구(목적어)와 주체 명사

4) 이하 ‘깜박하다’로 처리하였다.

구(주어)를 의미 유형별로 분석하여 ‘있다’류 유의어들의 의미 선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있다’류 유의어와 대상 명사구의 결합 관계

3.1 ‘있다’류 유의어의 대상 명사구의 출현 빈도와 비율

이 장에서는 ‘있다’류 유의어의 의미적 선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있다’류 유의어와 결합 관계에 있는 목적어로 기능하는 대상 명사구를 살펴보았다. 김민채(2023)에서는 유의어에 목적어로 실현되는 단어와 구, 그리고 조사나 조사 상당 구성과 결합하는 형태의 경우를 모두 ‘대상 명사구’라고 명명하였다. ‘있다’류 유의어의 목적어도 단어, 어절, 구, 절 등 다양한 언어 단위로 실현되고 있어서, 이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대상 명사구’라고 명명하고, 목적어 기능을 하는 대상 명사구의 의미 분석을 통해 ‘있다’류 유의어의 의미적 선호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말뭉치에서 ‘있다, 망각하다, 깜박하다, 까먹다’의 용례를 먼저 추출한 후, 각 어휘 용례의 대상 명사구의 의미를 분류하였다. 김민채(2023)의 유의어 대상 명사구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이소현(2015), 진령(2016), 신명선·이미현(2022), 초심념(2022) 등의 분류 방법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4> ‘있다’류 유의어의 대상 명사구의 의미 유형

유형		의미
대분류	소분류	
인간	개인	개별
	집단	무리
구체	사물	실체, 실상
	처소	공간, 방향
추상	심리	감각, 감정, 사고, 태도
	시간	시간, 시기, 시제, 날짜

	성질	특성, 수준
	개념	체계, 형식, 제도
	언어	언어, 말
상태	처지	사정, 형편, 상황
	기능	작용, 영향, 효과, 변화
	증상	증세, 병
	문제	논쟁, 논의
	자연	자연/재해 현상
사건	행위	행동, 움직임
기타		

‘있다, 망각하다, 깜박하다, 까먹다’의 용례를 말뭉치에서 추출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다’의 의미를 내포한 ‘있다’류 유의어를 일일이 분석한 후, ‘있다’류 유의어와 결합 관계에 있는 대상 명사구를 <표 4>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있다’류 유의어와 결합 관계에 있는 대상 명사구를 의미 분류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있다’류 유의어의 대상 명사구

유형		의미	예
대분류	소분류		
인간	개인	개별	나, 그녀, 아가씨, 오빠, 아버지, 은인, 택시기사, 영숙이...
	집단	무리	그들, 나라, 국가, 백성, 국민, 민족, 동료들...
구체	사물	실체, 실상	가방, 우산, 지갑, 핸드폰, 카드, 책...
	처소	공간, 방향	고향, 공간, 학교, 집, 장소...
추상	심리	감각, 감정, 사고, 태도	고통, 감사, 감정, 고마움, 공포감, 괴로움, 근심, 긍지, 희망, 불안, 생각, 시름, 슬픔, 아픔...
	시간	시간, 시기, 시제, 날짜	날, 날짜, 과거, 기념일, 내일, 미래, 생일, 밤, 시간, 제삿날, 지난날...
	성질	특성, 수준	가능성, 보편성, 중요성, 필요성...
	개념	체계, 형식, 제도	원칙, 도리, 상식, 원리, 죄, 진리, 취지...

	언어	언어, 말	가사, 대사, 단어, 독일어, 한국어, 이야기, 말, 말씀, 제목, 이름...
상태	처지	사정, 형편, 상황	상황, 사태, 시국, 입장, 처지, 현상...
	기능	작용, 영향, 효과, 변화	기능, 변화, 성과, 영향, 차이...
	증상	증세, 병	압, 우울증, 통증...
	문제	논쟁, 논의	과제, 논의, 논란, 투쟁, 질문, 학문...
	자연	자연/재해 현상	날씨, 더위, 추위, 죽음...
사건	행위	행동, 움직임	공부, 동작, 약속, 배신, 사건, 행동, 싸움, 운동, 운전...
기타			

‘있다, 망각하다, 깜박하다, 까먹다’와 대상 명사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출현 빈도와 비율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있다’류 유의어의 대상 명사구의 출현 빈도와 비율⁵⁾

유형		있다		망각하다		깜박하다		까먹다	
대분류	소분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간	개인	69	6.74%	49	4.73%	7	5.56%	4	1.21%
	집단	5	0.49%	17	1.64%	-	-	2	0.60%
구체	사물	86	8.41%	34	3.29%	16	12.70%	22	6.65%
	처소	27	2.64%	10	0.97%	2	1.59%	15	4.53%
추상	심리	227	22.19%	149	14.40%	7	5.56%	21	6.34%
	시간	72	7.04%	52	5.02%	6	4.76%	18	5.44%
	성질	9	0.88%	58	5.60%	-	-	2	0.60%
	개념	40	3.91%	243	23.48%	-	-	16	4.83%
	언어	108	10.56%	26	2.51%	15	11.90%	131	39.58%
상태	처지	68	6.65%	262	25.31%	7	5.56%	17	5.14%
	기능	2	0.20%	25	2.42%	-	-	6	1.81%
	증상	6	0.59%	-	-	-	-	-	-

5) 한 용례에서 의미 유형이 서로 다른 목적어가 2개 이상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계한 출현 빈도의 총수는 용례 수보다 많다.

	문제	19	1.86%	28	2.71%	-	-	4	1.21%
	자연	22	2.15%	12	1.16%	-	-	1	0.30%
사건	행위	228	22.29%	69	6.67%	58	46.03%	70	21.15%
	기타	35	3.42%	1	0.10%	8	6.35%	2	0.60%
	합계	1023	100%	1035	100%	126	100%	331	100%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있다’와 결합 관계에 있는 대상 명사구에서는 [인간], [구체], [추상], [상태], [사건]에 속하는 소분류의 유형이 모두 출현하였고, ‘망각하다, 까먹다’는 [상태-증상] 외에 다른 유형은 모두 출현하였으며, ‘깜박하다’는 [인간-개인], [구체-사물, 처소], [추상-심리, 시간, 언어], [상태-처지], [사건-행위]를 나타내는 대상 명사구와 결합한 용례가 출현하였다. 분석 결과, ‘있다’는 다른 단어들과 달리 모든 의미 유형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있다’류 유의어의 대상 명사구의 사용 양상

이 절에서는 ‘있다’류 유의어의 용례를 통해 대상 명사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있다’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 명사구의 출현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22.29%를 차지하였다. [심리] 유형은 22.19%로, [행위] 유형과 0.1% 정도의 매우 미미한 차이만 보였다. 이처럼 ‘있다’의 대상 명사구는 의미의 모든 유형에 출현하였고, [행위]와 [심리] 유형의 명사구와 결합한 용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ㄱ. 오랫동안 전쟁을 잊어 온 사우디인들은 ‘뜨거운 맛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 ㄴ. 아, 그리고 나는, 아, 김종필 총리와 한 약속을 결코 잊고 있지 않습니다.
- (3) ㄱ. 많은 사람이 혹은 그때의 고통을 잊었는지는 모른다.
 - ㄴ. 사람들의 환호에 슬픔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다.

(2)는 ‘잊다’가 [행위] 유형과 결합한 용례이고, (3)은 [심리] 유형과 결합한 용례이다.

‘망각하다’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처지] 유형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25.3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의미 유형은 [개념]으로 23.48%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망각하다’는 ‘처한 상황’이나 ‘이념, 원칙, 도리’ 등의 개념 용어와 의미적 선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심리] 유형이 14.4%를 차지하였으며, 출현 빈도가 높은 대상 명사구는 ‘아픔, 고통, 공포감, 궁지, 불안’ 등으로 나타났다.

(4) ㄱ. 빅토르는 잠시 자신의 입장을 망각한 듯하였다.

ㄴ. 하물며 부당한 편은 그쪽, 처지를 망각한 것도 그쪽이며 객이 주인을 밀어낸 형세 아니던가?

(5) ㄱ. 확실히, 1791년 이래 우리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망각한 정치체제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ㄴ. 이혼녀의 재혼은 이해하지만 자식에게 뿌리까지 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양자제도의 근본이념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6) ㄱ. 그 공포감을 망각한 채 오로지 마음의 진리만을 엄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ㄴ. 무슨 일을 이해(利害)로 따지기 전에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건방지고 불편한 버릇은 할아버지가 물려준 혈통의 궁지를 망각함과 동시에 깨끗이 고쳐졌다.

(4)는 ‘망각하다’가 [처지] 유형의 대상 명사구와 결합한 용례이고, (5)는 [개념] 유형의 대상 명사구와 결합한 용례이며, (6)은 [심리] 유형의 대상 명사구와 결합한 용례이다. ‘망각하다’와 [처지], [개념], [심리] 유형이 결합하는 용례는 ‘망각하다’ 전체 용례의 63%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망각하다’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행위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과 의미적 결합 관계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깜박하다’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깜박하다’의 대상 명사구는 [인

간], [구체], [추상], [상태], [사건] 5가지 유형에 모두 출현하였지만 [인간]에서는 [집단], [추상]에서는 [성질]과 [개념], [상태]에서는 [기능], [증상], [문제], [자연]에 해당하는 대상 명사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깜박하다’와 결합 관계를 맺는 의미 유형은 다른 ‘있다’류 유의어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 명사구는 46.03%로, ‘깜박하다’ 용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깜박하다’는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내용에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행위] 유형과 결합한 ‘깜박하다’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7) ㄱ. 아, 이 칫솔 갖고 온다는 거 깜빡했네.

ㄴ. 약속을 깜박하다니, 자기 쪽에서 먼저 해 온 약속이 아닌가.

‘까먹다’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언어] 유형이 39.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사, 대사, 이름, 제목, 말, 이야기’ 등의 표현들과 결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행위] 유형이 21.15%를 차지하였다. ‘까먹다’는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표현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8) ㄱ. 성악가들은 실수로 가끔 가사를 까먹는다.

ㄴ. 학교 이름 맨날 까먹네.

(9) ㄱ. 세수를 하려고 수돗물을 틀었다가 잠그기를 까먹는다.

ㄴ. 그리고 약속을 까먹은 떡을 용서해 주세요.

(8)은 ‘까먹다’가 [언어] 유형과 결합한 용례이고, (9)는 [행위] 유형과 결합한 용례이다.

4. ‘잇다’류 유의어와 주체 명사구의 결합 관계

4.1 ‘잇다’류 유의어의 주체 명사구의 출현 빈도와 비율

‘잇다’류 유의어는 일반적으로 주체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서, 주어 기능을 하는 주체 명사구는 인칭 표현으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잇다, 망각하다, 깜박하다, 까먹다’와 결합하여 주어 기능을 하는 주체 명사구는 인칭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었다.

<표 7> ‘잇다’류 유의어의 주체 명사구의 출현 빈도와 비율⁶⁾

인칭	잇다		망각하다		깜박하다		까먹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392	41.26%	134	16.32%	94	76.42%	181	55.18%
2	80	8.42%	11	1.34%	4	3.25%	41	12.50%
3	478	50.32%	676	82.34%	25	20.33%	106	32.32%
합계	950	100%	821	100%	123	100%	328	100%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잇다, 망각하다, 깜박하다, 까먹다’는 주체 명사구와의 결합 양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잇다’는 1인칭과 3인칭 명사구가 2인칭 명사구와 대비하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3인칭 명사구가 전체의 50.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인칭 명사구가 41.26%, 2인칭 명사구가 8.42%의 비율을 보였다.

‘망각하다’는 3인칭 명사구가 82.34%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망각하다’는 대부분 3인칭 명사구와 결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1인칭과 결합하는 비율이 16.32%, 2인칭과 결합하는 비율이 1.34%로 나타났다.

‘깜박하다’는 ‘망각하다’와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3인칭 명사구와 결합 관계가 높은 ‘망각하다’와 달리 ‘깜박하다’는 1인칭 명사구와의

6) 주체 명사구(주어)는 대상 명사구(목적어)와 달리 용례에서 생략된 경우가 많은데, 문맥을 통해 주체 명사구(주어)를 파악할 수 있는 용례도 있다. 여기서는 파악이 가능한 주체 명사구(주어)를 통계에 포함하였다.

결합 관계가 76.4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3인칭 명사구와 결합하는 비율은 20.33%, 2인칭 명사구와 결합하는 비율은 3.25%로 나타났다.

‘까먹다’는 ‘깜박하다’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1인칭 명사구와 결합하는 비율이 55.1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인칭과 결합하는 비율이 32.32%, 2인칭과 결합하는 비율이 12.5%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현 빈도와 비율을 통해, ‘잇다’는 1인칭, 3인칭 명사구와 비교적 고루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망각하다’는 3인칭 명사구와 결합하는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제3자의 행위를 서술할 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뭉치에는 신문이나 전지적 시점의 소설 등의 자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깜박하다’와 ‘까먹다’는 1인칭 주체 명사구와 결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내가 깜박했어.”, “나 까먹었어.”처럼 자신의 행위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4.2 ‘잇다’류 유의어의 주체 명사구의 사용 양상

이 절에서는 ‘잇다’류 유의어의 용례를 통해 주체 명사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잇다’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ㄱ. 정말 나 잇을 수가 없어 그 얘기는.

ㄴ. 너 김영하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구 잇을 거 아니야.

ㄷ. 페놀오염사건이 불과 한달 전인데 기업들은 벌써 그 충격과 책임감을 잇고 있다.

(10ㄱ)은 1인칭 ‘나’가 사용된 용례이다. ‘잇다’의 1인칭 주체 명사구는 생략된 경우가 48.72%(191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나’와 ‘우리’가 22.44%(88회)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냈다. ‘나’의 겸양적 표현인 ‘저’는 4.33%(17회)로 나타났고, 그 외에 ‘저희들’, ‘우리 겨레, 우리 한국’ 등과 같이 ‘우리’와 결합된 1인칭 복수 표현들이 1회씩 출현하였다.

(10ㄴ)은 2인칭 대명사 ‘너’가 사용된 용례이다. 2인칭 주체 명사구

의 사용에서도 주체가 생략된 경우가 77.5%(62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여러분’이 10%(8회)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 외에 ‘너’가 2회, ‘그대, 당신, 당국’ 등이 1회씩 출현하였다.

(10ㄷ)은 ‘기업’이라는 3인칭 명사가 사용된 용례이다. 3인칭 주어 표현에서도 주체가 생략된 용례가 30.33%(145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람’이 8.16%(39회), ‘그’가 2.51%(12회), 이 외에 ‘국민, 그들, 어린이들, 노인들, 아이들, 어른들, 관객들, 남자, 대부분, 대통령, 미국, 애, 이들, 정부, 환자, 검찰, 군인들, 그이, 기업들, 김씨, 남북한, 남편’ 등 209개의 어휘가 1%대로 나타났다.

‘있다’는 1, 2, 3인칭의 모든 유형에서 주체가 생략된 용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1인칭에서는 ‘나’를 지칭하는 표현, 2인칭에서는 ‘여러분’, 3인칭에서는 ‘사람’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은 ‘망각하다’의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11) ㄱ. 그 순간 나는 변호사로서의 신분마저 망각하고 있었다.

ㄴ. 지금 당신은, 문명인으로 나아가고 있는 당신은, 종말 속에 시작이 있는 우주의 리듬을 점차 망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ㄷ. 고르바초프와 그의 측근들은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중요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11ㄱ)은 1인칭 ‘나’가 사용된 용례이고, (11ㄴ)은 2인칭 ‘당신’이 사용된 용례이며, (11ㄷ)은 3인칭 ‘고르바초프와 그의 측근들’이 사용된 용례이다.

‘망각하다’와 결합하는 1인칭 주체는 ‘우리’가 51.49%(69회), ‘나/내’가 33.58%(45회), 주어가 생략된 용례가 9.7%(13회)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 외에 ‘저’가 2.24%(3회), ‘내 영혼, 우리 모두, 제 자신’이 각각 1회씩 출현하였다.

‘망각하다’ 용례 중에서 2인칭 주체가 사용된 경우는 총 11개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주체 명사구가 생략된 표현이 36.36%(4회), ‘당신’이

18.18%(2회), ‘기관, 귀국, 그대, 그쪽, 너희들’이 각각 9.09%(1회)로 출현하였다.

‘망각하다’의 3인칭 주체는 생략된 표현이 28.85%(195회), ‘그’가 4.59%(31회), ‘그들’이 4.14%(28회), ‘사람들’이 3.25%(22회), ‘인간’이 2.96%(20회)로 나타났고, 이 외에 ‘그녀(9회), 인간들(8회), 사람(7회), 민족(6회), 공직자(4회), 대통령(4회), 이들(4회), 현대인(4회), 개인(3회), 국민(3회), 기자(3회), 대중(3회), 민자당(3회), 민중(3회), 소설(3회), 시인(3회), 언론(3회), 작가들(3회), 크리스찬(3회)’ 등 총 307개의 주체가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망각하다’는 다른 ‘있다’류 유의어들과 달리 1인칭 주체가 생략된 용례 비율이 낮았으며, ‘나’의 사용 비율보다도 ‘우리’의 사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3인칭 주체 대상이 300개 이상으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다음은 ‘깜박하다’의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12) ㄱ. 내가 그 생각을 깜박했다.

ㄴ. 중요는 깜박했던 그분의 안부를 물었다.

(12ㄱ)은 1인칭 ‘내’가 사용된 용례이고, (12ㄴ)은 3인칭 ‘중요’가 사용된 용례이다.

‘깜박하다’의 1인칭 주체는 생략된 경우가 67.02%(63회)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나/내’가 24.47%(23회), ‘제’가 5.32%(5회) 등으로 나타났다. 2인칭 주체는 생략된 용례만 4회 나타났다.

3인칭 표현은 생략된 경우가 44%(11회), ‘회사’가 8%(2회), ‘교수, 그, 담당자, 미친놈, 성자씨, 승미, 아내, 애, 영신, 이 친구, 중요, 친구’ 등이 각각 4%(1회)의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까먹다’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 ㄱ. 아우 나 날짜도 까먹었는데,

ㄴ. 자네 정신이 있다. 본분을 까먹어도 분수가 있지.

ㄷ. 그 순간 인기 작가는 심삼목의 이름을 까먹어 버렸다.

(13ㄱ)은 1인칭 ‘나’가 사용된 용례이고, (13ㄴ)은 2인칭 ‘자네’가 사용된 용례이며, (13ㄷ)은 3인칭 ‘인기 작가’가 사용된 용례이다.

‘까먹다’의 1인칭 주체는 생략된 경우가 61.88%(112회)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나’가 30.94%(56회), ‘저(제)’가 4.97%(9회), ‘우리’가 2.21%(4회)로 나타났다.

2인칭 주체도 생략된 경우가 51.22%(21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너/니’가 12.2%(5회), ‘자네’가 9.76%(4회), ‘선생님’이 7.32%(3회)로 나타났다. 이 외에 ‘오빠(2회), 형님(1회), 다들(1회), 아빠(1회), 아저씨(1회), 이놈(1회), 형(1회)’ 등이 나타났다. ‘오빠, 형, 아빠’ 등은 단어 자체만 보면 2인칭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 발화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2인칭 주체로 쓰인 경우 2인칭에 포함하였다.

3인칭 주체는 생략된 경우가 20.75%(22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가 7.55%(8회), ‘사람들’이 2.83%(3회), ‘아이들’이 2.83%(3회), ‘녀석, 배우, 어머니, 여자, 정치인’이 각각 1.89%(2회), ‘사람, 상현, 아줌마, 경숙이, 경찰, 김 사장, 김 화백, 남자들, 누나’ 등이 각각 0.94%(1회)로 출현하였다.

‘깜박하다’와 ‘까먹다’는 1인칭 주체 비율이 각각 인칭 전체 비율에서 76.42%, 55.18%를 차지하고, 1인칭 주체 비율 가운데 생략 비율이 각각 6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깜박하다’와 ‘까먹다’는 주로 1인칭 주체 표현과 결합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생략되어 발화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지금까지 말뭉치 자료에서 ‘잊다’류 유의어를 추출하고, 이들과 결합하는 대상 및 주체 명사구를 분석하여 ‘잊다’류 유의어의 의미적 선호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이 모두 ‘기억을 하지 못하다’의 의미를 공유하지만 서술하는 대상이나 행위의 주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었다.

‘있다’류 유의어와 대상 명사구의 결합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있다’의 대상 명사구는 의미의 모든 유형에 출현하였고, [행위]와 [심리] 유형의 명사구와 결합한 용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망각하다’는 [처지] 유형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그다음으로 [개념] 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망각하다’는 ‘처한 상황’이나 ‘이념, 원칙’ 등의 개념 용어와 의미적 선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깜박하다’의 대상 명사구는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내용에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까먹다’는 ‘가사, 대사, 이야기, 이름, 제목, 말, 이야기’ 등 [언어] 유형의 표현들과 결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위] 관련 표현에도 많이 쓰임을 확인하였다.

‘있다’류 유의어와 주체 명사구의 결합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있다’는 1인칭, 3인칭 주체 명사구와 고루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망각하다’는 3인칭 명사구와 결합하는 양상이 두드러졌고 주체 대상이 300개 이상으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망각하다’는 구어보다 신문이나 소셜 등 텍스트에서 제3자의 행위를 서술할 때 다양한 주체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깜박하다’, ‘까먹다’는 1인칭 주체 명사구와 결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일상대화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유의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있다’류 유의어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여 유의어 간 의미 차이를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의어의 대상 및 주체 명사구의 결합 관계에 초점을 두었지만, 유의어에 대한 연구는 문법적 특성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문법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도 추후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Combination Relationships of Synonyms for ‘Forget’

Zhu, Lijia · Jeon, Eunjin(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ombination relationships between synonyms of 'forget' and their subject and object noun phrases, investigating the semantic preference patterns of each synonym and exploring their semantic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of the combination relationships between synonyms of ‘forget’ and object noun phrases revealed that the object noun phrases of ‘itda’ appear in all types of meanings, with the most examples combining with noun phrases of the [action] and [psychology] types. ‘Manggakhada’ appeared most frequently with the [condition] type, followed by a high proportion of the [concept] type. This indicates that ‘manggakhada’ shows a semantic preference for terms such as ‘situations encountered’ or ‘ideologies, principles, doctrines, truths,’ etc. It was confirmed that the object noun phrases of ‘kkanbakhada’ tend to be used in contexts related to human [actions]. ‘Kkamokda’ was found to combine with noun phrases of the [language] type such as ‘lyrics, lines, words, stories,’ etc.

Analyzing the combination relationships of subject noun phrases with synonyms of ‘forget,’ it was found that ‘itda’ combines equally with first-person and third-person noun phrases. ‘Manggakhada’ prominently combined with third-person noun phrases. On the other hand, ‘kkanbakhada’ and ‘kkamokda’

showed a higher rate of combination with first-person noun phrases.

Key words : synonym, object noun phrase, subject noun phrase, combination relationship, semantic type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민족문화연구원,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http://riksdb.korea.ac.kr>)
어휘정보처리연구소, 『낱말 유의어사전』(<https://m.wordnet.co.kr>)

■ 단행본

- 김하수 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 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리형태, 류은중, 『동의어, 반의어, 동음어 사전』, 한국문화사, 199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어휘정보처리연구소, 『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낱말, 2010.
한재영 외, 『한국어 어휘 교육』, 태학사, 2010.

■ 논문 및 기타 자료

- 김경원,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오류 양상에 관한 고찰 - 중국 대학생들의 문장에 나타난 오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0, 2008, 5-26면.
김민채, 「'걱정하다'류 유의어의 사용 양상 고찰」, 『인문사회 21』 14-3, 2023, 2517-2529면.
김아림, 김바로, 「부끄러움/창피함/속스러움/수치스러움/수줍음간의 관계 고찰 공기 명사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문맥 분석」, 『언어』 43-3, 2018, 409-441면.
김은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김일환, 이승연, 「형용사 유의어의 공기어 네트워크와 활용 - '안타깝다'류의 형용사를 중심으로」, 『언어정보』 14, 2012, 61-81면.
김준기, 「유의어의 성립 양상 고찰」, 『한국학연구』 10, 1999, 1-19면.
남귀옥, 「한국어 '참가하다' 유의어의 공기 관계 연구 -명사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80, 2022, 315-353면.
도재학, 강범모, 「관련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의어 분석 -'책, 서적, 도서'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7, 2012, 133-159면.
문금현,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5-3, 2004, 65-94면.
박중호, 황경수, 「한국어 동사 유의어 교육 방안에 관한 소고」, 『새국어교육』 92, 2012, 419-446면.
배윤정,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쁘다' 유의어의 공기 관계 연구」, 『어문연구』 85,

2015, 5-23면.

- 배윤정, 「공기 관계를 활용한 ‘두렵다’ 유의어의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1-1, 2021, 567-591면.
- 성미향, 「심리형용사 유의어의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심심하다’, ‘따분하다’, ‘무료하다’, ‘지루하다’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7-2, 2021, 133-162면.
- 신명선, 이미현, 「‘부끄럽다’ 유의어들의 한중 의미 비교 연구 -‘부끄럽다,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수줍다, 쑥스럽다’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77, 2022, 229-279면.
- 안주호, 「한국어 유의어 {지키다/챙기다/유지하다}의 의미와 교수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6-1, 2022, 141-162면.
- 진령, 「한국어 어휘 결합관계의 의미적 선호를 통한 유의어 의미 변별 연구 - ‘무섭다, 두렵다’를 중심」, 『한국어 의미학』 53, 2016, 117-143면.
- 초심님, 「의미적 선호를 통한 ‘기쁨’ 감정동사 의미 변별 연구 - ‘기쁘다, 즐겁다, 반갑다, 재미있다, 행복하다’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4, 2022, 531-565면.